

지역 매 아 리

김제시보건소 시민건강대학 수강생 모집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오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2019년도 하반기 시민건강대학 수강생 50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김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보건소 및 각 읍·면 보건지소에 접수하면 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민건강대학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 인기가 높아져 왔다. 상반기에는 "성공적 노화 프로젝트 I" 주제로 높은 만족도 속에서 50명이 수료하였다. 하반기 주제는 "성공적 노화 프로젝트 II"이며, 9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9:00~12:00)에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시민건강대학 프로그램은 뇌 건강 및 행복감 증진,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노인문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예방적 차이를 초점을 두고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민건강대학 수강생 모집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63-540-130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김제시보건소는 '포퓰러 지역조사, 튼튼한 지역건강'이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지역 사회건강조사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김제시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통계조사로, 우리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혈압과 키·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선정된 조사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의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제시의 경우 선정된 534가구에 대하여 선정통지서 및 홍보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본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교육을 수료한 보건소 소속 조사원으로 붉은색의 유니폼에 김제시보건소장 직인이 날인된 신분증을 착용하고 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는 건강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조사결과를 위해 선정된 대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 보건지소 이용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우선 원칙 적용

완주군이 의료시설 방문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원격의료지원은 의사가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치료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선정됐다.

현재 완주군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는 병·의원 및 약국이 부족해 의료취약지역으로 꼽힌 운주,

화산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은 현재 이 두 지역에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원격-방문진료 대상자는 만성질환(고혈압·당뇨·허리통증·무릎관절 등)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원칙을 적용했다.

또한 1차 대상자 중 공중보건학사의 대면진료를 마친 후 건강관리 및 진료와 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4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현재 원격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공중보건학사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치료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운주면의 한 주민은 "고혈압·당뇨약을 처방받기 위해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거동도 불편하고, 요즘 같은 폭염이면 더욱 힘들었는데 수월해졌다"고 호응했다.

심해경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고 손쉽게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이 스마트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옛 김제의 번영 찾는 제2의 광복"

## 김제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는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지난 14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독립운동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식 및 경축음악회를 가졌다.

이번 광복절 경축행사는 독립운동유공자 유족소개, 국민의례, 기념사, 경축사, 만세삼창에 이어 광복 7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의 광복절 경축음악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축음악회에서는 가수 정수라씨가 특별출연해 히트곡 '아!대한민국, 환희' 등을 열창하며 시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김제시민의 애국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과 경축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경축행사를 계기로 우리 또한 이런 민족의 자력을 발휘하여 우리지역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 토대에서 옛 김제의 번영을 되살리는 것이 제2의 광복이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8월 13일부터 광복절 당일인 15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였고, 유관기관이나 각 가정에도 태극기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광복절 경축행사 당일에는 관람객들에게 손태극기를 배부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김제=곽노태 기자

# 역량 결집해 김제지평선축제 최고로 만들자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1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의 축제 준비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프로그램 준비 진행 상황 보고, 축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김제지평선축제는 'Over the horizon' 건강한축제를 신나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5개 분야 66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글로벌 축제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글로벌 콘텐츠를 강화하고 임시 주차장 확대 및 셔틀버스 증차, 워터 마린 등 관광객 중심의 수용태세 개선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 박성일 완주군수, 물놀이 현장찾아 '안전' 강조

박성일 완주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방문,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4일 박성일 완주군수는 만경강 국가하천에 위치한 고산면 소재 오성교 일원에서 2019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완주군은 하천이 많아 매해 여름이면 물놀이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고산면 오성교 일원을 비롯해 운주면 장산천, 고산면 고산천, 동상면 용소 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 17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요

원 39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 CCTV와 감시초소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점검에서는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장비 비치 여부, 안전관리요원 근무현황, 물놀이 위험구역 출입금지 계도 활동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산단 약취개선사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완주군이 산단단지 약취지감을 위한 2019년 약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보조금 대상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약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은 지난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산단단지 내 중소·중견업체를 대상으로 약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뤄졌다.

현장실사를 통한 민원의 유발 정도와 방지시설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업체의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 전문가와 공무원 민간으로 구성된 약취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화학 3개소, 자동차부품 2개소로 자본금 3억3천만원에 군에서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약취유발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3차 약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 본격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단일사업 중 전북 최대 참여인원인 32명의 청년창업가를 양성,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아리(Ali-Re)' 사업은 '모든 것(Ali)을 다시, 새롭게(Re)' 시작하자는 의지를 담은 김제시 사업명으로 전북 최대규모의 청년창업가 27명 32명을 선정, 총사업비 6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가에게는 최대 팀(인)당 1800만원의 창업초기비용이

지원되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실

업 창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13일, 14일 양일에 걸쳐 김제 삼성생명명연수원에서 열린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혁명 4.0 시대 창업 트렌드 변화와 기업가 정신교육을 통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강의 후 창업에 대해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다소 부족한 청년창업가의 니즈(Needs)를 반영해 멘토링 중심의 사업계획 작성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